

한평생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5)

불멸의 통일친필을 민족만대에 길이 전해가도록

관문점에는 절세위인의 존귀한 존함이 새겨진 친필비가 있다. 활달하면서도 기백이 넘치는 글씨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생애 마지막 막으로 남기신 친필이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가시려고 얼마나 마음쓰시었으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도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장을 보아주시셨겠는가. 조국통일의 대사를 기어이 안아오실 철석의 신념과 확신에 넘쳐 우리 수령님께서 역사적인 조국통일문건에 한자두자 새기신 불멸의 친필. **《김 일 성 1994. 7. 7.》**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해 바쳐오신 숭고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이 어려워있는 이 역사적인 친필을 정히 받들어 후세에 길이길이 빛나도록 해주시분은 바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지 않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던 피눈물의 7월, 누구보다도 더 큰 상상의 아픔을 안고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서 어머니수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비준하시신 조국통일문건을 민족만대에 길이 전해갈 귀중한 국보로 잘 보관하도록 이르셨다. 그리고 주체84(1995)년 5월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적과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길이 전해가도록 관문점에 친필비를 세울데 대하여 교시하시었으며 친필비형성도 안으로부터 해설문내부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었다. 주체84(1995)년 8월 조국해방 50돐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친필비가 관문점에 훌륭히 건립되게 되었다. 친필비는 기본주제부분인 비문판과 목란꽃장식부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비들의 총너비는 영히히 있을수 없는 1994년을 의미하여 9.4m로, 비문판의 너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 친필 종합을 남기신 날인 7월 7일을 상징하여 7.7m로 되어 있다. 목란꽃장식부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 82돐을 맞으시는 해에 불멸의 친필을 남기셨다는것과 그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영히히 높이 우리러모시고 끝까지 마

르러는 온 겨레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과 드림없는 신념을 반영하여 82개의 목란꽃송이가 부각되어있다. 비문판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관계 문건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김 일 성 1994. 7. 7.》** 이라는 글씨가 그의 필체 그대로 새겨져있다. 그리고 비문판아래 목란꽃 장식부분 옥단에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지고 조국통일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종합을 남기신 경에하는 김일성주석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리》라는 사적비문이 새겨져있다. 주체85(1996)년 11월 어느

날 관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필비를 돌아보시었다. 깊은 감회에 젖어 친필비를 한동안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어머니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에 친필비준하시신 력사적문건이 바로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이었다고, 수령님께서 그때도 밤을 지새우시며 두툼한 그 문건을 다 보아주시고 표지에 활달하신 필체로 친히 종합과 날자를 써주시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수령님의 친필은 아홉줄짜리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담겨진 수령님의 뜻은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것이라고 하시었다. 관문각에 오르시었다가 다시 친필비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친필비앞에 이렇게 서니 생 각되는것이 많다고 하시면서 민족분열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삼천리강토를 안겨주시러 온갖

하며 7월의 하늘가에 경모의 열풍을 몰아오는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격동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관문점을 찾았던 외국의 한 인사도 《김일성주석처럼 민족의 운명을 두고 그처럼 마음 쓰시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위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 친필비는 그대로 위대한 혁명가, 민족의 어머니로서의 그분의 민족대단합과 통일을 위한 업적이 집대성되어있는 격사의 기념비이다.》라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업적을 길이 빛내이시는 경에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3월 관문점을 찾으신 친필비에 새겨진 글씨를 한글자, 한글자 주의깊게 바라보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어머니수령님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되새기셨다. 또한 어머니수령님께서 관문점에 무려 4차례나 나오시었다고,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종합을 남기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관문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 하시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할 철석의 의지를 표명하시었다. 진정한 관문점에 찬연히 빛나는 불멸의 친필은 오늘도 우리 겨레에게 조국통일을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하여주고 있으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성업에 떨쳐나서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리 현 일**

조선은 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해답을 주는 고귀한 명언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일찌기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는데 조국통일의 당위성이 있다. 유기체란 생물체를 이르는 말이다. 민일 생물체를 이루는 여러 조직이나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파괴되거나 자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생물체는 살수 없다. 우리 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강도에서 하나의 혈통과 언어, 문화를 가지고 살아온 단일 민족이다. 그러던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 70여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는 국토량탄과 민족의 분열은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주고있다. 지금 조선사람치고 그가 어느 계급, 어느 계층의 출신이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 **본사기자 박철남**

남조선에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고 지어 민족성까지 말살되고있다. 민족분열은 동족사이에 대결과 불신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조성하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가로막고있다. 나라의 분열이 지속될수록 우리 겨레가 당하는 피해와 재난은 심해지고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은 커지게 될것이며 나중에는 민족적합화를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민족의 분열을 더이상 지속시켜서는 안되며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내고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충분한 힘과 의지가 있다. 오늘날의 조선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강국과 분열을 강요당하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수 있는 유기체

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단결을 다져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민족대단결 5대방침관철을 위한 투쟁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1998년 6월 10일 평양에서 공화국정당, 단체 대표자회의가 열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중대한 발기가 울려나온것을 계기로 더욱 적극화되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범민련 북측본부,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중학생동맹, 조선학생총동맹, 조선기차동맹, 조선공인협회회를 비롯한 공화국의 정당, 단체 대표자회의가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필하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당면대책을 토의하고 조국해방 53돐에 즈음하여 관문점에서 북과 남, 해외가 참가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추전》을 진행할것을 회의하였다.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추전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통일대추전을 진행할데 대한 공화국의 제외에 범민련 남측본부와 해외측이 적극 호응분부하였다. 추진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해외측준비위원회들이 조직되고 여러 차례의 실무회담들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북, 남,

해외측에서 각기 3명씩으로 하는 추진공동운영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대추전행사를 파란시키기 위하여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을 《리적단체》로 몰아 탄압하는 한편 접어용기구를 조작하고 거기에 《민간단체》의 모자를 띄워 추전행사에 끼우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공화국에서는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책동을 폭로단죄 하는 활동을 적극 벌리었다. 남조선과 해외에서도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범민련 남측본부 상임의장은 성명을 발표하여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에 대한 당국의 《리적단체》 규정 등 부정적 조치를 요구 하였으며 범민련 해외본부도 8.15통일대추전준비위원회 회회성공보를 통하여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구심체인 범민련과 《한총련》의 통일대추전참가를 가로막고있는 남

조선당국의 법적책동을 통일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신랄히 규탄하였다. 공화국의 주동적인 발기와 그 실현을 위한 온 민족의 노력과 투쟁에 의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추전》은 조국해방 53돐을 맞으며 드디어 막을 올리게 되었다. 통일대추전에는 공화국에서 28개, 남조선에서 2개, 해외에서 38개 모두 68개 정당, 단체의 대표 800여명을 비롯하여 2 000여명이 참가하였다. 반동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남조선의 《한총련》 대표들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들이 통일대추전에 참가하여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3차려때를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1998년 8월 15일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과 각계각층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관문점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

추전》개막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어 동포단합대회,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8범민족회의》, 제3차 범청학련총회와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해외의동포 청년학생 제3차련석회의》, 8.15통일대추전 미술전시회와 사진전시회를 비롯한 다양한 통일행사들이 펼쳐졌다. 대회와 회의들에서는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드높은 의지와 결의들이 과녁되었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관문점공동선언과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8범민족회의 공동결정서, 제3차 범청학련총회 결의문과 해외의동포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하여 련방조국통일 앞당기자》를 채택하였다. 이렇듯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공화국창건 50돐전야에 열린 1998년 8.15통일대추전은 민족대단결5대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시위하고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더욱 굳게 묶어세워 조국통일운동으로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민족자주의식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민족자주의식은 자기 민족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이다. 다 아는것처럼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갈수 있다. 민족자주의식이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힘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민족자주의식을 잠먹는 땅국의

결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다. 지난 20세기초 우리 나라가 삼나라도 량개들에게 먹히우게 된것도 부재무능한 조선봉건정부가 국력을 강화하여 나라를 지킬 생각이 하지 않고 사대주의, 외세의존에 매달린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조국이 해방된 후에도 숭미사대주의에 빠진 남조선의 력대 집권자들은 외세를 등에 업고 그들의 침략정책에 추종하는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여왔다. 우리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외세에 의존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것은 예속의 율가미를 스스로 자기목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조선에서는 민족내부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녀며 구

결하는 반민족적행위가 계속되고있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북과 남의 온 겨레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름잡을 가져야 한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온 겨레는 확고한 민족자주의식을 지닐 때 못해벌 일이 없다는것을 깨이 새기고 민족자주의식을 잠먹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성업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유금주**

통일을 불러

련북애국의 길에서 빛나는 삶 (2)

조완구선생은 독립의 뜻을 품고 북간도로 망명한지 31년만에 귀향길에 올랐다. 기나긴 이국에서의 망명살이를 끝내고 조국으로 돌아왔건만 선생에게는 기쁨보다 쓸쓸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수십년세월 남편을 여타게 기다리던 안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해방으로 들끓던 나라는 또다시 외세에 의해 두동강이 났다. 당시 선생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지금 나라꼴이 이 지경으로 두동강이 났고 제각기 제 목소리만 높이며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니 우리가 나라를 찾겠다고 발버둥

치며 완전한 독립을 바라던것이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참으로 우리의 앞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사실 상해림시정부의 요인 이었던 선생도 《개인자각》의 명목으로나 귀국할수 있다는 미군정의 《허가》를 받고야 남조선으로 돌아올수 있었다. 당시 미군정이 실시되는 남조선에서는 혼란된 정국과 사회적무질서속에서 매일같이 형형색색의 정치세력들이 나타나고 세 정당, 새 단체가 편이 출현하였으며 일개 나 불리는 사람은 저마다 애국자로, 정치가로 자처하며 군중을 우롱하였다. 지어 친일세력들까지도

《한민당》이라는것을 결성하였으며 상해림시정부의 배척을 받고 오래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친미반공분자로 전락된 리승만은 《독립촉성중앙회의》라는것을 구성하고 총재의 자리에 올라앉았다. 외세의 군화발발에 또다시 짓밟히운 남뎃방은 좌파와 우파, 중간과 등 파벌세상으로 화했다. 더우기 리승만은 미국의 사후하에 로콜로적으로 《단선단정》조직의 길로 홀달음치고있었다. 1946년 12월 미군정청은 조완구선생을 남조선과도립법의원의 관선의원들중 한사람으로 지명하였다. 그러자 선생은 이를 단연 거부하는 성명을 냈다.

미국의 음모적인 각본에 따라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지맥으로 잇닿은 하나의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이어 국토량탄과 민족분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 준엄한 시기 조완구선생은 분연히 단선반대투쟁의 앞장에 섰다. 선생은 미국에 의하여 조선문제에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되어 국토량탄과 민족분열의 위기가 심화되던 1947년 9월에 김구의 비서장으로서는 흥명회선생과의 련계밑에 김구선생이 공화국이 제시한 남북협력회의 소집제안에 호응해나서도록 하였다. **본사기자**

